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2021년 새해를 맞은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참으로 사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다. 그 많은 사건과 어려움 중에서도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은 코로나19였다.

2021년 1월 4일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550만 3722명이고 사망자는 185만 829명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6만 4264명의 확진자와 98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과, 1918년에 발병하여 몇 개월 사이에 2000만 명을 희생시킨 스페인독감엔 미치지 못하지만 21세기 들어서 맞는 최대의 재앙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사태를 당하여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각급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화상 수업

고진감래(苦盡甘來)

을 받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어놀아야 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 쓰럽기 짝이 없다.

국민 또한 일 년이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헤쳐 오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언택트’와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버린 결과는 어떠한가? 신체 활동의 제약으로 대인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불안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다. 정부기관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와 함께 정신적 방역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영웅적인 헌신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부터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으며 유럽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일부 불지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방역에 협조했다.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국난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 이를 말해준다. 일제의 식민 정책을 대항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나 상층 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농민을 비롯해서 인력거꾼이나 기생에 이르기까지 혹은 담배를 끊고 혹

은 머리털을 깎으면서 이 운동에 동참했다. 어디 그런인가. 가까이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이런 국민의 저력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다. 증가하는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지자 민간병원인 경기도 평택의 박예병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전담 병원으로 전환을 자청하여 140개 치료 병상을 확보했다. 이어서 안산의 세화병원이 뒤따랐고 다른 몇 개의 병원도 치료 전담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 한다. 대기업은 사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았는가 하면 경기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게 했다. 여기에 가수 나훈아 씨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3억 원을 희사했고, 가수 송가인 씨도 역대 성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으니 머지않아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따른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백신의 개발인데 다행히 몇몇 백신의 유효성이 입증되어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보인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지 않았던가. 어려움을 이겨 내면 즐거움이 오는 법이다. 친구들과 모여 술도 한잔하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희망을 갖자.

청춘특목

내리는 눈도 결국 길 위에서 다시 만난다



임혁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년

코로나19를 피해 ‘방콕’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의 새벽이었다. 창을 닫고, 블라인드를 두껍게 친 탓에 오래간 만에 광주를 덮는 눈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 남쪽 도시에 살면서 평평 내리는 눈을 볼 기회가 일 년에 몇 번 안되는 촌놈은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왔다. 가로등 불빛을 조명 삼아 떨어지는 눈을 한참 동안 구경했다. 점차 자동차며, 나무며, 심지어 담벼락과 길마저도 하얗게 덮여 갔다. 나는 슬리퍼를 운화화로 갈아 신기 위해 잠깐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막 쌓인 눈길에 첫발자국을 찍으며 걸어 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빼앗겼다. 나팔고도 밭잡을 설치고 있는 올빼미쪽이 더 있었나 보다. 흑어나 만나면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찌면 발자국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었다. 선행자가 나무 위에 쌓인 눈을 톡치고 갔는지, 뼈제나 나뭇가지

아래로 눈 더미가 떨어져 있었다. 좀 더 뒤따라가다 보니 자동차 뒷 유리에 쌓인 눈을 음각해 고양이를 그려 놓았다. 누군지 모를 사람 덕분에 오랜만에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두텁게 쌓이는 눈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나 보다.

조선시대 첫눈 내리는 날은 마치 현대의 만우절처럼 장난과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었다. 세종실록에는 “고려시대에는 첫눈이 오는 날에 남을 속이는 풍속이 생겼고, 이런 풍속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적혀 있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태종은 첫눈이 내리는 날 눈을 상자에 담아 형인 노상왕(정종)에게 약이라 속여 보냈다. 현대 노상왕은 태종의 장난을 눈치채고 상자를 전달하러 온 환관 최유를 잡으려 했다. 보통 노상왕이 잡으려 하면 무조건 붙잡혀 주는 것이 예이지만, 환관은 불경스럽게도 도망을 쳤다. 바로 첫눈 오는 날은 이런 무례와 장난이 용서됐던 것이다. 결국 노상왕은 최유를 놓쳤고, 장난에 당한 노상왕은 태종에게 술을 샀다고 한다. 우리 민족 해학과 풍자의 문화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날 외출하니 학교 운동장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비록 만들어

진 눈사람들은 서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잃어버린 일상을 찾는 기분이었다. 바귀 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기도 하다. 비정상적인 한 해를 보내야 했고, 당장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웃음과 일상을 찾으려 했다. 각자의 노트북 앞에 술상을 차리고 연말 랜선 파티를 열었고, 좋아하는 가수의 온라인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오늘은 내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미목이다.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진다/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아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한 구절이다. 과연 2020년이 그리워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 함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면, 모두 웃으며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었으면 한다.

친구와 가족끼리 ‘삼삼오오’(三五五)보다 ‘삼삼사사’(三三四四) 모여 눈사람을 만들거나, 태종과 노상왕처럼 장난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것 같은 하루를 쌓아 보자. 서로 거리를 두며 떨어지는 눈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길 위에서 다시 만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모두가 여유와 재치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社說

요양병원발 코로나19 급속 확산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에선 새해 첫 휴일에 코로나19 역대 일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일 26명에 이어 3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4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순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확진자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자 ‘식당 낫살 금지’(오전 5시~오후 4시 식당 주류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2단계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해가 되면서 광주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요양병원 발 환자자 급증했기 때문인데,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만 누적 60여 명을 넘어섰다. 이 병원의 전체 환자는 293명이며 의사와 간호사·직원 등 종사자는 152명에 달한다. 확진자는 대부분 입원 환자가 지내는 본관 2층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요양시설 입구에는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

렸다. 일부 보호자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 한 보호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더니 거동도 못 하는 노인들이 병원 안에서 코로나를 퍼뜨렸겠느냐”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요양시설 집단감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행정명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중증환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중증 환자 치료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중증 전담 잔여 병상은 3개 뿐이다.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에 취약한 시설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평소와 환자 침상과 침상 사이의 거리 두기나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리 이어 닭까지... 조류독감 방역 이상 없다

무안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전남 도내 열 번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번 겨울 들어 전남에서는 오리에 이어 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더욱이 닭은 오리보다 조류독감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첫 고병원성 AI 확진이 들어온 무안의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들을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4일 영암 시종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이래 한 달간 영암·나주·장성·구례·곡성·무안 등 여섯 개 시군의 열 개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

데 아홉 곳은 모두 오리 농장이었으며, 닭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금까지 방역 과정에서 발생 농장 열 곳과 반경 3km 이내 가금 농장 52곳에서 살처분된 가금의 규모는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닭이 117만 4000마리(15개 농장), 오리는 84만 8000마리(47개 농장)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401 농장에서 모두 250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중 다섯 번째 규모다.

이처럼 조류 독감이 오리에 이어 닭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두터운 방역망이 필요하게 됐다.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부실하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엄청난 상황인 만큼 가금 농가에서는 차량·사람·장비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전남도 등 지자체도 방역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레이덕(lame duck)은 다리를 절며 기우뚱기우뚱 걷는 오리를 뜻한다. 흔히 임기 말의 정치 지도자를 비유해 쓰이는 말이다. 임기 막판엔 각종 정책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지도자들이 안간힘을 쓴다. 대규모 인적 쇄신과 과감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연쇄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이 또한 현 정부가 레이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오리의 정치학

실제로 문 대통령이 대내외 국정 지지를 40%대가 지난 연말 붕괴됐다. 몇 개월 전 부동산 정책 문제로 인해 잠깐 40%대 지지율이 무너진 때가 있긴 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문 대통령엔 충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년 단임제 특성상 차기 대선 이 1년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 민심을 잃고 휘청거리면 레이덕을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들도 예외 없이 레이덕에 시달렸다. 레이덕

이 발생하는 원인은 권력의 속성과 제도적 문제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심이 정권에 멀어지면서 출발한다. 민생 문제 해결 없이는 임기 말 레이덕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권은 ‘데드덕’(dead duck: 죽은 오리) 현상에 직면할 수도 있다. ‘권력 누수’를 넘어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인 ‘권력 공백’ 현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 현안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흔히 하산 길에는 자세를 낮추야 한다고 말한다. 고개를 들기보다는 발밑을 봐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기 고

코로나 팬데믹과 게임산업의 성장



이준석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게임은 다른 사업과 달리 불황 속에 도리어 기회를 잡는 사업군 중 하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도 게임시장은 역시 전례 없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보여 준 게임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서가 아닌,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콘텐츠로서의 모습이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들은 보통은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적인 생일 파티나 축하 파티를 게임 속에서 즐기거나 결혼식, 장례식을 게임 속에서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식적인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게임 속에서 진행되고 회사의 사내 회의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놀이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즐겁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게임이 축하와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얼마 전 게임을 하나의 질병으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를 권장하고 있고, ‘플레

이어파트투게더’(#PlayApartTogether)의 ‘떨어져서 같이 놀자’ 캠페인처럼 전 세계적 비대면 소통 운동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다.

기업들 역시 게임을 비대면 소통 혹은 마케팅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 발렌티노, 안나수이, GCDS, 나이키 등 업계들이 게임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게임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의상들을 입은 아바타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게임의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사례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를 타겟으로 한 콜라보면·과자류의 마케팅이었다면, 근래는 삼푸·은행·안경 등 전 방위적으로 마케팅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카트라이더 콜라보, 이마트와의 콜라보 등을 진행한 넥슨의 경우 얼마 전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게임’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게임시장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정식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 e-스포츠는 타 스포츠와는 달리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기를 진행했고 올해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코로나 속에서도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0 롤드컵’ 누적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을 넘어섰고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분당 평균 시청자는 작년보다 87.2% 늘어난 36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누적 시청 시

간이 작년보다 61.8% 늘어난 1억 6092만 시간이었다고 결승전 분당 평균 시청자 수는 2304만 명,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4595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로 e-스포츠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제39차 총회에서 ‘2022 한겨울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게임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산업으로 지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안에는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 게임 기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 9000억 원, 수출액을 1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10만 2000개로 늘릴 것을 목표로 잡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통해 게임을 코로나 시대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게임업계 전반을 봤을 때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 게임은 이제 놀이의 수준이나 돈벌이 수단 이 아닌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간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폐쇄감은 수동적인 동영상 시청보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채팅을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게임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게임의 사회 문화적 확장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기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